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174 (사랑의 신비)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제 1독서 | 욕기 38,1.8-11

<주님께서 욕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화답송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좌)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우)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좌)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우)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제 2독서 | 코린토 2서 5,14-17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
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
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4,35-41

영성체 후 묵상 |

아무리 거칠게 풍랑이 이는 밤이어도, 언제나 주님
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간
절한 외침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
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마음 속 풍랑을 가라앉히
실 것입니다.

Today's Gospel, <Mark 4:35-41>

With the coming of evening,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And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just as he was, in the boat; and there were other boats with him. Then it began to blow a gale and the waves were breaking into the boat so that it was almost swamped. But he was in the stern, his head on the cushion, asleep. They woke him and said to him, 'Master, do you

not care? We are going down!'

And he woke up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Quiet now! Be calm!' And the wind dropped, and all was calm again. Then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o frightene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They were filled with awe and said to one another, 'Who can this be?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Rembrandt,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 1633>

Today we can ask ourselves: what are the winds that beat against my life? What are the waves that hinder my navigation, and put my spiritual life, my family life, even my mental health in danger? Let us say all this to Jesus; let us tell him everything. He wants this; he wants us to grab hold of him to find shelter from the unexpected waves of life.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 - 안소근 수녀님

“세상 소풍 끝나는 날 / 아름다웠더라고 / 가서 조용히 말하리라.” 세상 소풍이 끝나고 귀천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추한 것뿐이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기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 줍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을 기점으로, 1-11장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닌 온 인류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태고사 또는 원역사라고 불립니다. 12-50장은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성조들에 관한 전승을 담고 있습니다.

1-11장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추한 모습, 선과 악,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입니다. 여기서 다시 분기점이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는 3장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세상을 특징짓는 말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 등)입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3장의 창조 이야기는 서로 다른 전승들이지만, 공통적으로 1-2장은 하느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신 그대로의 ‘좋은’ 세상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는 3장 이후로 인간의 죄가 거듭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선과 악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있고, 추하고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명확하게, 본래의 세상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고 단언합니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좋은’이 손상되기는 했어도, 세상은 그 자체가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 페이지에서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창조의 선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요약됩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영과 육을 구별하면서 물질을 악한 것이라고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정면으로 대립됩니다. 물질은 선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4장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6장에서는 사람들의 악이 온 땅에 가득 차서 하느님께서 창조를 후회하시고 홍수로 모든 것을 없애기로 작정하시는 데에 이릅니다. 창조 이전과 같은 혼돈 상태로 되돌리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장에는 인간이 하느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3-11장은 인간의 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1-2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은 점점 추하게 변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3-11장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매번,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느님의 축복이 죄를 지은 인간을 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하느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창세 2,17), 아담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아담을 죽이셨다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시면서도 오히려 가죽 옷을 입혀 주시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카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해서 다른 사람이 카인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카인에게 표를 해주시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니다. 오히려, 카인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은 카인을 죽이려는 자에게 일곱 배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죄인을 죽이는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느님은 방주를 마련하게 하시어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보존되게 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노아가 바치는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창세 8,21)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빚어져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경우도, 하느님은 인간의 죄가 하늘까지 이르기 전에 그 교만을 먼저 꺾어 흠으심으로써 인간이 멸망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3-11장의 이야기들은 죄의 증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 축복의 힘을 보여 줍니다. 인간의 죄에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인류 역사는 아담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본래부터 선하게 만드신 세상과 그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는 인간의 죄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을 망가뜨려도,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자비를 꺾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선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신앙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세계관과 타협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세상은 타락했고 말세이고 이러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창세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손상되어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에 지혜서 저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지혜 1,14).

공지 사항

1. 캔버라 한인성당 교적 정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 안내

그동안 Exel 과 Word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신자분들의 교적 정보 (세례, 견진, 혼인 등의 성사 대장과 주소 및 연락처)를 '한국 천주교 본당 양업'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한국 천주교회는 새로운 교적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1차적인 목적은 한국 천주교회 내의 전체 전산망을 통합하고 교적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한인 성당들에게 오픈 되어있는 기능들이 있으며, 교적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당 신자분들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거나 혹은 다른 한인 성당들에 가시게 될 경우를 위해서, 교적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관리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양업 시스템에 신자분들의 교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자분들께서 작성해주신 동의서는 스캔한 후 양업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인쇄된 동의서는 성당입구에 비치될 예정이며, PDF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후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적 정보는 '양업 시스템 전용 VPN'이 설치되어 있고, 인증된 PC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안상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현재 한국에 있는 성당에 교적이 있거나 타 한인 성당에 교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원래 교적이 있던 성당 사무실에 '교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캔버라 한인 성당 이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혹은 인쇄된 증명서 주임신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캔버라 한인성당에서 교적이 따로 관리 되지 않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6월 9일	유아·청소년: 16명	성인: 49명
6월 16일	유아·청소년: 18명	성인: 48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6월 23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6월 23일)	마태오반
다음주 (6월 30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6월 15일 ~ 6월 21일)

봉 헌 금	\$451.15				
교 무 금	\$580				
권묘순	김정수	김태룡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황병욱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